

1987년

서울 지역 대회

1987년 9월 12일과 13일에 서울 지역 대회가 있었다.

12일(토요일)의 신권 지도자 모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스테이크의 신당 와드 건물에서 있었고, 13일(일요일)의 일반 총회는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한 힐튼 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있었다. 교회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감리한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는 약 540여 명의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일요일 총회엔 5,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성도들이 저마다 왼쪽 가슴에 서울 지역 대회를 기념하는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붉은 글씨가 인자된 둥근 패(牌)를 달고 일요일 일반 총회에 아침 7시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9시 30분에는 이미 준비된 좌석을 꽉 메웠다.

서울 스테이크 화양 와드의 박 관수 형제가 편곡한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성도들이 큰 시험이 닥쳐와도”와 “주님이 오실 때”를 14명으로 구성된 실내 관현악단의 반주로 350여 명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서울 지역 합창단이 노래했을 때 그 아름다운 화음은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토요일 모임과 일요일 총회 모임에서 하신 말씀들을 요약하여 싣는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비활동 신권 소유자를 강화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이를 위해



말씀하는 힝클리 부대관장

감독은 매주 신권 집행 위원회를 갖고 모든 신권 프로그램을 확인하며 특히 가정 복음 교육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지도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들은 지도자이다.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영감받아 부름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서울 지역 합창단

하며, 지도자는 프로그램과 임무를 잘 알아야 하며,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고 지도자는 자기의 책임을 위임해야 한다.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의 권세와 임무의 일부를 남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남자란 수여된 도전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는 교리와 성약 121편 36~41, 43절을 인용하시면서 신권 소유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에 관해 말씀하셨다.

15분 휴식 후 옥스 장로가 말씀했다.

우리는 모두 영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의 실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가정에서 기도하라. 단순한 음식 축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해 기도하라.
2. 경전을 읽으라. 예언자가 매일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였으니 예언자의 음성에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전을 읽도록 하라.
3.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서 성찬식에 참석하여 자기 성찰과 예수님을



교회 및 지역 소식

기억하는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

4.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하라. 성전에 가서 주님과 기록한 약속을 맺으며 만일 성전 결혼, 결혼 인봉, 가족 인봉 등 성약을 이미 맺은 사람은 성약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라. 가먼트를 성스럽게 하라.
5. 감독은 청소년들을 선교사로 준비시키라. 선교 사업은 참으로 중요하다. 선교사로의 봉사는 평생 하나님 왕국에서 일하도록 동기를 주는 것이다. 부부도 은퇴 후에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6. 신권 지도자는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해야 하는 데 첫째는 교리와 성약 121편 43절의 교훈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신권은 이같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둘째는 간증을 해야 한다.
7.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다하라. 장막 너머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계보를 탐구해야 한다. 현재 서울 성전에서는 매달 1600여 명의 의식을 집행하는데 성전에 제출되는 성명은 800명에 불과하다. 이미 준비된 성명도 일 년이 채 못되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 자신의 조상의 성명 찾기와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명 추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
8.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라.
9.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라.

또한 옥스 장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는 우리 뒤에 있는 능력보다는 크지 않다고 했으며 교리와 성약 64편 34절의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이



말씀하는 옥스 장로



농아들이 수화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회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스미스 장로



말일의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어서 헝클리 부대관장은 한 인상(서울 지역 대회에서 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을 통역함) 형제가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쯤인 1966년에 한국에 선교사가 32명이었는데 오늘날 한국에 600명의 선교사가 있으며 그 당시에는 지부가 전국에 7개 있었으나 오늘날 15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가 있으며 그 당시에는 없던 스테이크가 오늘날 14개가 있으며 당시에는 없던 성전이 있으니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개인과 국가를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바와 같이 성전에 갈 때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좋은 느낌 즉 하나님의 영을 느끼니 자주 주님의

집을 이용하자고 권고하셨다. 헝클리 부대관장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백성들을 축복한다. 축복이란 선물이다. 공장에서 영접할 때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로 받았으며, 호텔에도 꽃병에 꽃이 꽂혀 있었는데 이 선물은 사랑의 상징이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여러분은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권의 권세로 축복하며,

백성을 축복하라. 하나님이 늘 축복을 주시지는 않으시나 그 축복을 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이며 권리이다. 또한 모임에서 경전을 가르치고,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고, 경전의 말씀으로 축복하라. 많은 자들이 교리에 목말라 하고 있으니 교리로 그들을 축복하고 지도력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 앞에서 인도하라. 주님은 한국에 계신다. 그러나 사탄도 한국에 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깨끗하며, 유혹을 이기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여러분은 오로지 용서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아내와 자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교회 및 지역 소식

받을 것이다.”

일요일 일반 총회에서는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의 부인 바바라 비스미스 자매,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옥스 자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헝클리 자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이 말씀하셨다.

십이사도의 일원인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가 서로 외모는 다르지만 서로 형제 자매이며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미국 신문에서 지난 여름에 한국에 있었던 자연 재난인 폭우와 재해 소식을 연일 접하였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요 14 : 27; 16 : 33)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4~2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명을 받았다. 이것이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헝클리 부대관장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지역 합창단 지휘자에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불러 주도록 요청하셨으며 합창단이 노래부르는 동안 계속 눈물을 닦으셨다. 헝클리 부대관장은 고 김 호직 박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가 한국 말일성도



합창단이 부르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를 들으면서 눈물 닦고 계신 헝클리 부대관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기초는 놓여졌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다. “비록 오늘의 고난이 클지라도 앞으로 올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여러분의 생활에 반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성취한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서 보았다. 경제적 기적이 있었으나 또 다른 기적이 있으니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이 백성이 영접하는 것이며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이니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에 또 다른 장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자”고 말씀했다.

끝으로 헝클리 부대관장은 “제가

주님의 손의 상처를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라고 간증하셨다. 이번 대회는 옛날 이스라엘의 사도들의 시기의 오순절 설교를 방불케 하는 영적 잔치로서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 주신 모임이었다. 참석한 성도들은 경건한 가운데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모임이 끝난 후에도 은은히 울리는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총관리 역원 부처가 다 퇴장할 때까지 한동안 앉아 있었다. □

“제가
주님의 손의 상처를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합창단의 노래를 반주하고 있는 현악기 연주자들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



교회 및 지역 소식

복음 토론— 신앙의 성장을 돕는 촉매제



주 정화 자매

“아휴, 이거 야단났구나. 결론은 저들이 나에게 책을 팔려는가 보구나.” 나는 걸로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자못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와 다른 여러 직원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맨 외국인 자매 두 사람이 들어와 그들은 마치 나를 이미 알고 있는 듯이, 거리낌없이 내게로 다가와서 검은 색 표지에 금박으로 물문경—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이라고 인쇄된 책을 나에게 건네 주며 “읽어 보세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가볍게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좋은 책—이—예—요. 읽어—보세요.”라고 서툰 한국말로 내게 권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것과 의사 소통이 여의치 않다는 생각에 값을 치르고 그들을 돌려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꺼냈을 때 그들이 그 특유의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자매님께 선물 주는 것입니다. 받아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활짝 웃어 보이며 되돌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워

심장이 멎는 듯했으며 숙인 뜨거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기분은 아련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었으니까요. 나는 처음 보는 책이라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으나 그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그대로 책장에 다른 책들 사이에 꽂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첫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우리 집은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면 흰 와이샤츠를 입고 큰 편뎀을 세워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설명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순수함을 겸비한 아름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잘 수줍어하며 내성적인 나는 그들 앞을 지나치면서도 감히 그들과 얘기를 나눌 엄두도 못내었으나 그들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더해 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고귀한 인간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지금의 송정 전도소에 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환대했으며 내게 복음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 준 선교사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회와의 두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순수함을 겸비한
아름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며칠 후에 직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때 처럼 가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고 나는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맞닥뜨렸습니다. 다시 토론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일 년 정도 다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교의 영향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불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여 종교를 가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의 권유로 말미암아 부모님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참석하여 무작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올 땐 허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제지도 없이 나 스스로 교회 다니기를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와 종파가 있지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 방황했던 것처럼 의문점에 대해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분을
찾아 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분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셨으며 우리 사이에
용서의 영을 느꼈습니다.

장로님들과 토론을 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혹시 사교가 아닐까?” 등등 수많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저히 나 스스로는 이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도조차 포기하려 하였을 때 나는 마지막 기도 중에 물문경을 확실하게 보았으며, 누군가가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으며 마지막 여섯번째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및 지역 소식

다니던 전의 직장에서 어떤 존경했던 분으로부터의 실망감 때문에 말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일 때문에 항상 괴로와하며 지내 왔었습니다. 당장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나의 경솔했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해 왔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만 두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더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그분을 찾아 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분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셨으며 우리 사이에 용서의 영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짐을 떨쳐 버렸습니다.

5월 30일에 나는 마치 환옥의 천사처럼 침례의 물로 인도되었습니다. 종교가 서로 다른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변화된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어 오히려 나의 침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짧은 이 주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에서 배운 것보다 더 값진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의 경우처럼 무작정 교회를 다니다가 낙오된 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여섯 가지 복음 토론은 그러한 결점을 보완해 주며 신앙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도와 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일성도 자매가 될 것입니다. □

주 정화 자매는 광주 스테이크
송정 지부의 주일학교 15~16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합동 청년 대회에 참석한 지도자와 독신 성인들

서울 강서, 동대문, 영동, 북 스테이크 합동 청년 대회 참관기

황 혜정 자매(강서 스테이크 강서
와드)

금방이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릴 듯한 쌀쌀한 여름날 아침 8시에 서울 지역의 네 개 스테이크(강서, 동대문, 영동 북 스테이크)에서 온 독신 성인 형제 자매들이 성전에 모였다. 3박 4일의 청년 대회를 떠나기 위해 모두 상기된 얼굴이지만 기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성전에서의 출발은 우리가 완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특별한 시작이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대전 산홍 국민학교에 도착하니 이들 먼저 도착한 선발대의 환영식이 베풀어지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과 방 배정이 끝난 후에 중방부지라는 장기 자랑 시간이 있었다. 리하이, 콜롬부스, 브리감 영

등의 교회 지도자는 물론 강기와 쿡시들, 각설이까지 등장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기면서도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질리도록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부시시 일어나서 엉겁결에 에어로빅을 한판 하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Team Building"을 마치고 쌍쌍이 베이스 활동을 하는 "시몬강 건너편"이란 모임을 가졌다. 서로가 힘을 합쳐 야기 도끼비는 물론 새총 사격수와 물을 뒤집어쓴 물귀신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웃고 즐기는 동안에도 "This is the place" 팀은 젖은 옷으로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장장 여섯 시간 동안의 험한 행진의 시작은 신앙의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탈춤을 배우고 물걸 사나운 개울을 넘어서 가며



본부 대대의 활동 모습

교회 및 지역 소식

건너서 무거운 바지와 젖은 신발로 복숭아 밭과 험한 산을 올라 신앙개조를 암송하고 풍선으로 머리 싸움을 한 후엔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목이 쉴 정도로 노래를 하고 나니 산속에서 무서운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이 무너져라 지르는 비명과 그 비명 소리에 놀라 버린 능청맞은 형제들이 자매와 함께 가장 험한 산길을 따라 내려오니 흰 옷의 천사가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 흙탕물에 옷과 신발은 엉망이 됐지만 그날밤 브리감 영 대관장의 'This is the place'라는 외침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신앙의 힘으로 체육 대회에서 열심히 뛰었다. 펭귄 축구, 배구, 발배구, 발야구, 씨름과 마라톤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며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게 하였다. 우정의 마음이 서서히 물드는 황혼녘에 아름다운 모습의 형제, 자매들은 타오르는 모닥불 곁을 뛰어다니며 젊음을 즐겼다. '탁' '탁' 소리를 내어가며 사그라지는 모닥불 옆에는 하나하나 글자를 만들어 가는 촛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겨졌다.

세미나 시간에...

서로의 마음에 하트 모양이 그려지고 하얀 초가 녹듯 서로의 마음도 분위기에 녹아 있었다.

마지막 밤을 꿈속에서 지내야만 했다는 아쉬움 속에 가진 간증 모임은 서로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전해 줌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날을 곱게 장식해 주었다.

“세미나를 해주신 지도자님,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3박 4일을 보내신 두 분의 고등 평의원께 감사한다. 백팔십여 명의 회원을 인솔하기 위해 준비한 독신 성인 의장단과 취사부에 감사하고 각 대대장에게 또한 감사한다.”는 마음을 각기 갖고 고속 도로를 달려 성전에 도착하여 아쉬움을 간직한 채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간간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도 청년 대회 후속 모임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즐거운 소식도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발전되고 성숙된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 □

서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7월 28~30일에 노랑진 와드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그린도전서 13장 13절의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한 이 대회는 말일성도로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서로 돕는 정신을 보여 주었다. □

서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참석자들



동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1987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87명의 청소년들과 고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87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대회 주제는 “매사에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많은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였으며 주제 성구는 교리와 성약 58편 26~29절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교회 및 지역 소식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이었다.

대회의 모든 진행은 이 우영 부장이 준비 모임부터 전체 모임을 관리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대회 주제의 정신을 살려 준비 모임에서부터 청소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문이나 지도자들은 뒤에서 자문하고 격려하는 일만 하게 했다. 장마 관계로 계획된 모임 일정에 차질을 가져 왔으나 건물 안에서 더욱 훌륭한 모임을 짜임새있게 진행하였다.

대회 기간 중에는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방문하여 격려 해주었다. 특히 극기 훈련인 탐험대 활동으로 극도로 치져 있을 때 김 병희 스테이크 부장이 방문하여 “우리들의 초기 성도들이 나무에서 서부로 이동할 때 오늘의 극기 훈련보다 수백 배로 힘들고 고난에 찬 시련을 경험하면서 도착한 곳은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당시 서부에는 기후도 좋고 토지도 비옥한 낙원처럼 아름다운 곳이 많았는데 예언자는 어찌서 온갖 악조건을 다 갖춘 불모의 사막 지대를 택하시고 이곳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시련을 통해서 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었다.

대회가 끝나는 날 참석했던 모든 청남 청녀들은 한결같이 크게 변화된 모습으로 간증을 해주었다.□

전세계에서 출품작을 받은 교회 미술 대회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역사 및 미술 전시관에서 금년 초에 발표한 국제 순수 미술 대회에 이십 삼 개국 출신의 육백여 화가들이 1000점 이상의 출품작을 제출했다.

1,031개 출품작의 예선 심사는 화가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슬라이드와 인화지에 현상한 것을 기본으로 선정했다. 예선에 통과된 250개의 선정 작품에 대한 본선 심사는 실제 작품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극동 지역에 있는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전적될 것이다.

“전세계의 말일성도 화가들의 호응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글렌 엠 레오나드 전시관 책임자가 말했다. “전에는 미처 알려 지지도 않은 많은 화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내어 놓았으며, 이 중에서 많은 작품이 교회 출판물에 사용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출품작들의 주제는 경전, 교회 역사 및 현대 말일성도의 생활 양식을 반영했다고 레오나드 형제는 말했다.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도 역시 인기있는 주제였다.

“심사원들은 형식적인 것로부터 민속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술 양식을 대하게 되었습니다만, 각 작품은 양식에 관계없이 작품 고유의 예술성에 의해 심사되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본선 심사는 일, 이, 삼등과 다섯 개의 가작으로 가려질 것이다. 입상작은 후에 성도의 벗에 발표될 것이다. 최소한 150점의 출품작들이 선정되어 1987년 11월에서 1988년 2월까지 교회 전시관에 전시된다.□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자매 별세,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미망인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자매

고인이 된 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미망인,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자매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김볼 자매가 운명하기 수일 전에, 43년간 태버내클 올겐 반주자로 있었던 알렉산더 슈라이너가 향년 86세로 9월 15일 별세했다.

김볼 자매는 멕시코 치후아후아에 있는 말일성도 개척 식민지, 콜로니아 후아레조에서 출생했다. 십대 시절에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친척에게 와서 살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유타 주립 농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가족과 함께 에리조나로 이주하여 거기서 김볼 형제를 만났다. 그들은 1917년 11월 16일에 결혼했다.

결혼으로 대학 학위에 대한 그녀의 계획도 변경되었으나, 일생 동안 그녀는 대학 강의를 받았다. 그녀는 가족의 교육과 교양을 강조했으며 3남 1녀의 네 자녀들이 모두 열 개의 대학 학위를 취득했다.

“지식의 추구는 복음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고 그녀는 한때 말했다. “여성은 가정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이 스스로 네 개의 벽안에 묻혀 버린다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자녀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세계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따라, 김볼 자매는 여러 지역 사회 단체, 특히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약했다. 그 밖에도,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교회 부름을 맡았으며, 특히 육십여 년 이상 상호부조회에서 방문 교사로 봉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김볼 형제가 1943년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후, 김볼 자매는 여러 직무를 맡은 남편을 동반하여 전세계를 이곳 저곳 여행하며 교회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맡은 많은 책임에서 축복받았음을 느꼈다. “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지극히 흥미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낼 수 없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게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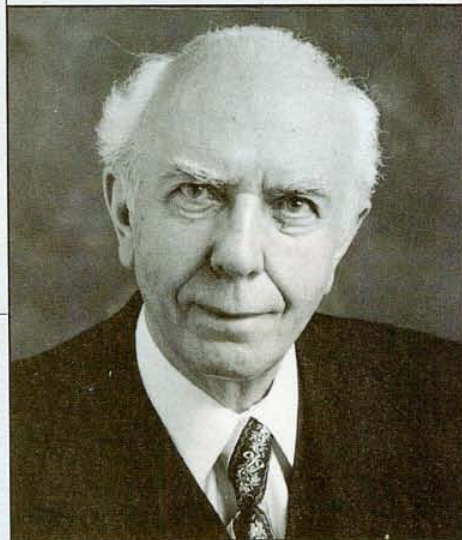
오르간 반주자

알렉산더 슈라이너형제는 1901년에 독일의 뉴렘베르그에서 출생했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여 여덟 살 때 지부의 반주자가 되었다. 그가 일곱 살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갔으며, 열 두 살밖에 안 되었을 때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 있는 유명한 태버내클에서 오르간 연극 리사이틀을 갖기 시작했다.

1924년 4월에, 그는 태버내클 오르간 반주자로 부름받아, 1977년에 해임되기까지 그의 인생의 반 이상을 그 직책을 맡아 일했다.

9월 15일 그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운명하기 전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그의 공을 치하했다.

“알렉산더 슈라이너 형제는 수천 회의 오르간 리사이틀과 물론 합창단과의 수십 년에 걸친 연주로 교회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술성은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 그가 작곡한 오르간곡과 찬송가는 전세계 교회 오르간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을 끊임없이 고양시키고 축복해 줄 유산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슈라이너 형제

알렉산더 슈라이너 형제 별세, 태버내클